

# 완도 냉동창고 화재...소방관 2명 현장 고립 순직

신고 접수 약 3시간만 완전 불구 대응 초기 40대·30대 대원 실종 이민석 서장 “2차 진압서 폭발” 화원 토치로 페인트 제거 추정



12일 오전 8시25분께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난 불로 소방관 2명이 숨졌다. 사진은 진화와 수색 작업을 벌이는 소방 당국. <전남소방본부 제공>

완도 한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유증기 폭발로 갑작스레 확산한 불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신속동료구조팀 투입됐지만 난항

12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즉시 경찰과 한전 등 유관 기관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오전 8시31분께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오전 8시40분께까지 지휘 차량과 구조 등 장비가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진화 작업이 시작됐다.

오전 9시께는 관할 소방서 전 인원을 투입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그로부터 약 2분 만에 소방 대원 2명이 실종됐다는 게 파악됐다.

이에 RIT(Rapid Intervention Team·신속동료구조팀) 운영이 결정돼 소방 당국은 실종 대원 2명의 위치정보를 조화하고 구조팀을 투입했지만, 화재 현장 특성상 신속한 대처는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소방 대원 중 한 명은 실종 파악 1시간 만인 오전 10시2분께 구조됐다. 나머지 한 명도 오전 11시23분께 발견됐지만, 두 소방 대원 모두 이 미숨을 거둔 상태였다.

화재는 마지막 소방 대원이 구조된 이후 약 3분 만인 오전 11시26분께 완전됐다.

### ◇유증기 폭발·화재 확산 ‘철철산중’

숨진 소방 대원들은 완도구조대 소속 A(40

대) 소방위와 해남소방서 산하 북평지역대원 B(30대) 소방사다.

이들을 포함한 총 7명의 소방 대원은 1차 진압 후 공장 내부에 다시 연기가 보이자 2차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천장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불이 급속도로 확산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석 완도소방서장은 브리핑을

통해 “2차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유증기가 폭발했다”며 “검은 연기와 불꽃이 보여 지휘팀장이 무전으로 대피를 알렸으나, 2명은 대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불이 난 건물 일부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라 화재에 취약하고 내부에 우레탄폼이 내장돼 있어 유독가스와 유증기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해당 건물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서 초기 진화에 유용한 스프링클러도 없었

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탓에 불과 함께 검은 연기가 냉동창고 안을 뒤덮으면서 소방 당국은 구조 활동에 애를 먹었고 고립된 2명은 창고 입구 쪽에서 차례로 숨진 채 발견됐다.

A 소방위는 2007년 임용된 베테랑 구조대원이자 슬하에 세 자녀를 둔 가장이었고, B 소방사는 2022년 임용된 젊은 대원이자 올해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터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 ◇전남서 약 6년만 또 참변 ‘애통’

현재까지 이번 화재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한 에폭시 작업 중 토치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망한 소방 대원 2명 외에도 현장에선 창고 관계자 C(50대)씨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당시 그는 에폭시 작업 중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에폭시 작업 중 토치로 열을 가열하면 기존에 굳어 있던 페인트가 녹으면서 제거가 쉽지만, 불이 불을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유증기 발생·폭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남에서 현장 임무 중 소방관이 희생된 것은 2020년 7월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계곡에서 피서객을 구조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김국환 소방

장 사고 이후 약 6년 만이다. /안재영 기자



## “순직 대원 장례 전남도지사장 엄수”

소방청, 유가족 협의 후 일정 결정

특별승진·훈장추서·현충원 안장도

완도 한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 대원 2명의 장례가 전남도지사장으로 엄수된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숨진 소방 대원들에 대

한 전남도지사장 장례(영결식) 일정을 유가족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숨진 대원들에 대한 특별 승진을 추진하며 승진된 계급으로 예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고인의 공적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육조근정훈장추서를 추진하고 국립 현충원 안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가족에 대해서는 자녀 장학금 지원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국 소방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조의금 모금을 통해 생활 안정에도 힘을 보탬 방침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들어간 두 대원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국가는 끝까지 그 헌신을 기억하고 책임질 것이며,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 광주회생법원, 해광건설 파산 선고

광주회생법원 파산1부(김성주 법원장)는 지난 10일 해광건설 주식회사에 파산을 선고했다.

해광건설은 광주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로 1983년 설립해 ‘해광상그릴라’ 등 자체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해왔다.

2023년 12월 고금리와 자재값 상승 등으로 만기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같은 해 종합건설사업자 평가 기준 시공 능력 평가액은 203억6천100만원으로 전국 908위 수준이었다.

해광건설의 주요 자산 매각·포기 정보는 법원 누리집(<https://www.scourt.go.kr>) 대국민 서비스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재영 기자

### 깊이 1m 농업용수로 빠진 90대女 숨져

주택 인근 1m 깊이의 수로에 빠진 90대가 숨졌다.

12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22분께 해남군 송지면 한 주택 인근 수로에 A(90대·여)씨가 농업용 수로에 빠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안재영 기자

## 학부모 단톡방서 ‘악의적 뒷담화’ 40대 벌금형

학부모 단톡방에서 거짓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주부가 벌금형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용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주변인의 돈을 때먹는 사람인 것처럼 음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 투자 관련 채권·채무 관계로 얽혀 있었는데, 수익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A씨는 원금 이상을 회수하면서 더는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추가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재영 기자

### 만남 거절 양심...흉기 휘두른 70대 입건

만남 요구를 거절당한 데 양심을 품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A(70대)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께 북구 각화동 한 음식점에서 B(60대·여)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찬용 기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에게 만남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고 이 과정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신고를 당한 것에 대해 양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뒤 경찰에 직접 신고했으며 체포 직전 음독해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찬용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